

# 北韓「社會」研究의 現況과 方法論的 課題\*

李 溫 竹

(서울大學校 師大 教授)

## 1. 主題의 性格

2. 北韓「社會」研究의 概況  
3. 方法論的 側面의 考察  
    가. 研究方法의 기술적 측  
    면

## 나. 方법론의 메타이론적

측면

4. 北韓「社會」研究의 方法  
    論的 課題

## 1. 主題의 性格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관한 연구활동이 학문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임은 주지하는 바이며, 그 전까지의 북한 관계 문헌들은 「당국에 의한 통일관의 천명 및 그와軌를 같이 하는 時論, 정보분석류와 반공홍보자료 기타 월남 귀순인들에 의한 북한의 내막폭로가 그 주된 내용」이었다고 규정된다.<sup>(1)</sup>

60년대에 짹트기 시작한 북한연구가 70년대부터는 상당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學」으로서의 북한연구 또는 「北韓學」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sup>(2)</sup> 이때의 북한학 내지 북한 연구란 주로 북한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가능성의 추구도 사회과학적인 전망에서 시도된 것이었다.<sup>(3)</sup>

\* 각종 자료수집, 정리는 주로 이춘아(현대사회연구소)양이,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학과 대학원생 다수가 도와주었다. 감사한 뜻을 표한다.

(1) 안병영,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제1호(1977), p. 145.

(2) 토론, “북한연구의 學的 體系와 方法的 省察,” 『북한』 제44호(1975.8), pp. 102-114.

(3) 위의 토론; 이계희, “체계적 북한연구를 위한 접근방법—북한연구와 사회과학,” 『북한』 제41호(1975.8), pp. 136-147.

물론, 북한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활동들이 사회과학적인 것에만 국한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시 학문적 북한연구의 주종을 이루어온 것은 사회과학적 작업이었고, 그 전통은 초기의 북한연구에 앞장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여러 가지 업적으로부터 비롯하여 정립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정부(특히 국토통일원)가 주축이 된 자료정리 및 체계화의 작업 또한 사회과학적 성질의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북한연구의 학문적, 사회과학적 시도들이 「과학적 연구로서의 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시인해야 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sup>(4)</sup>, 「그 이론과 연결된 분석틀의 정비가 현단계에서 가장 시급」하리만큼 이론화의 정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sup>(5)</sup> 사회과학적 접근 또는 분석틀의 활용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북한연구를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사회과학 분파는 정치학 또는 국제정치학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점은 곧 이어 자료에 입각하여 입증되겠지만,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의 학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공산권연구의 주역들은 정치학(국제정치학 포함)이라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 글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북한연구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의 연구에 관한 것이다. 북한「사회」라 해도 사회과학 어느 분파에서나 다를 수 있는 성질의 주제이겠지만, 그「사회상」에 대한 연구라 했을 때는 사회학이나 인류학의 관심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학계나 또는 국제적으로도 사회학은 이른바 지역연구에 소홀했으며, 더구나 공산권연구와는 거리를 상당히 두어 왔고, 인류학은 주로 미개사회나 개발도상국의 촌락 등에 대한 관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북한「사회」연구의 추세와 현황을 우선 개관해 보고, 그러한 연구 중 특히 사회(과)학적 접근을 취한 연구들이 어떤 이론적틀과 방법론적 특징을 갖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아울러 북한「사회」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지금까지의 사회과학적 논의의 주요 논지를 간추려 봄으로써 앞으로의 북한「사회」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과제를 전망해 보

(4) 황성모, “북한연구 현황과 방법론,” 『북한학보』, 제 4집(1981. 1), p. 11.

(5) 이상우, “북한연구,”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공산권연구현황』, (서울: 법문사, 1981), p. 96.

고자 한다.

## 2. 北韓「社會」研究의 概況

북한에 관한 연구 일반의 양적인 측면은 이미 다른 학자들에 의해 집계·보고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북한「사회」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量的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 보겠다. 먼저 전체적인 북한연구 업적 중 북한「사회」 연구 업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북한관계 연구실적에 관한 수량적 자료는 국토통일원 집계 자료목록을 기준으로 한 이상우 교수의 통계와,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으므로 독자적인 집계로 보이는 김창순씨의 집계가<sup>(7)</sup> 아직은 주된 원천인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은 숫자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지금까지 생산된 자료는 이들이 보고한 것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는 이상우 교수의 견해이다.<sup>(8)</sup>

어쨌든, 이교수의 숫자가 더 많고 최근의 것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다루어지지 않은 1980년 7월 이후 1981년 6월 말까지의 자료를 별도로 첨가한 것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내용은 사회분야(자료에는 사회·문화·교육까지 포함)가 전체 연구실적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이다. 논문의 범주에서는 18.0%, 단행본 15.0% 그리고 자료집에서 13.4%가 그 상대적 비율이고, 이들을 전부 합친 것은 17.4%를 차지한다. 이는, 정치외교의 평균 27.4%, 통일문제의 22.0%, 그리고 군사분야의 19.8% 다음의 위치이며, 경제·과학이나 기타 분야보다는 앞서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관계 저작물들은 정치, 외교, 통일, 군사 등 주로 정치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문화일반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분야는 이를 정치분야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문화일반과 교육을 제외하고 특히 「사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것들만 다시 추려보면, 1981년 6월 현재로 집계된 것이 논문 350편, 단행본류 74종인데, 이는 전체 논문의 6.7%, 전체 단행본의 9.1%에

(6) 위의 글

(7) 김창순, “공산주의 및 공산권연구개관” 한국공산권협의회, 위의 책, pp. 38-78.

(8) 이상우, 위의 글 pp. 81-82의 註 5).

표 1. 北한 관계 저작 통계

分野	區分	期間							計	저작물 종류 비중(%)	작별별 비중(%)
		45.8.15 76.3.31	76.4.1 77.6.30	77.7.1 78.6.30	78.7.1 79.6.30	79.7.1 80.6.30	80.7.1 81.6.30				
政治 外交	論文	544	333	164	125	106	136	1,408	26.9		
	單行本	67	42	72	46	14	13	254	31.1		
	資料集	14	17	2	0	0	0	33	22.1		
經濟 科學	論文	134	44	20	40	31	28	297	5.7		
	單行本	29	6	23	6	5	10	79	9.7		
	資料集	1	0	0	0	0	0	1	0.7		
社會 教育	論文	420	165	58	130	119	47	939	18.0		
	單行本	45	23	17	14	9	14	122	15.0		
	資料集	9	11	0	0	0	0	20	13.4		
軍事	論文	359	262	221	107	48	104	1,101	21.0		
	單行本	30	19	33	7	1	11	101	12.4		
	資料集	10	14	3	0	0	0	27	18.1		
統一	論文	683	120	52	140	121	59	1,175	22.5		
	單行本	62	56	26	2	5	15	166	20.3		
	資料集	16	5	0	0	0	0	21	14.1		
其他	論文	33	6	0	247	21	3	310	5.9		
	單行本	7	4	21	29	0	33	94	11.5		
	資料集	47	0	0	0	0	0	47	31.5		
計	論文	2,173	930	515	789	446	377	5,230	84.4		
	單行本	240	150	192	104	34	96	816	13.2		
	資料集	97	47	5	0	0	0	149	2.4		
總計		2,510	1,127	712	893	480	473	6,195	100.0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 관계 자료 목록집』 기준 집계(1970.7.1 이후), 그전의 것은 이 상우, 『북한 연구』, p.83. 표 1.

불과하다. 더구나 학위논문의 경우는 박사학위논문 중 정치학이 단연 많고 사회분야에서는 한편의 논문도 없다. 석사논문 중에도 지난 81년 현재 총 143편 중 겨우 6편(4.2%)만이 사회·문화 및 언론문제를 다루고 있다. (표 2 참조)

이처럼 북한 「사회」에 관한 연구업적이 저조하다는 점은 물론 자료집근에 있어서의 난점과 또 그 사이 북한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관심의 추이, 사회과학과 인접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사회를 연구주제로 삼는 데 인색했었다는 사실 등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면, 그러한 사회분야의 저작물들이 어떤 주제를 다루어 왔으며, 어떤 형식의 것인지를 짧깐 살펴 보

表 2. 북한 및 통일안보관계 석사학위논문 주제분류

年 度	區 分	主 題 分 類										其 他	計			
		黨	政 治	外 交	行 政	法 律	經 濟	軍 事	對 南	南北	安 保	統 一				
196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962	1	1	1	1	1	1	1	1	1	1	1	1	1	3		
1963	1	1	1	1	1	1	1	1	1	1	1	1	1	3		
1964	1	1	1	1	1	1	1	1	1	1	1	1	1	4		
1965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966	1	1	1	1	1	1	1	1	1	1	1	1	1	4		
1967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968	1	1	1	1	1	1	1	1	1	1	1	1	1	13		
196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970	1	1	1	1	1	1	1	1	1	1	1	1	1	13		
197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972	1	1	1	1	1	1	1	1	1	1	1	1	1	12		
1973	1	1	1	1	1	1	1	1	1	1	1	1	1	8		
1974	1	1	1	1	1	1	1	1	1	1	1	1	1	5		
1975	1	1	1	1	1	1	1	1	1	1	1	1	1	20		
1976	1	1	1	1	1	1	1	1	1	1	1	1	1	18		
1977	1	1	1	1	1	1	1	1	1	1	1	1	1	11		
1978	1	1	1	1	1	1	1	1	1	1	1	1	1	19		
197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計 (%)		(3.5)	(10.4)	(9.8)	(7.7)	(5.6)	(8.4)	(4.2)	(7.0)	(6.3)	(8.4)	(4.2)	(14.7)	(3.5)	(2.1)	143

자료: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충목록』 기준 첨개; 1979년 이전은 김창순, 『공산주의 및 공산권 연구개관』, p. 66. 표 7-1.

표 3. 북한의 「사회」분야 연구 실적—단행본

자료：국토통일원, 『북한관계자료 목록집』

표 4. 북한의 「사회」분야 논문개관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관계 차료 목록집』.

겠다.

집계된 자료는 역시 국토통일원에서 그동안 집성해 놓은 『북한관계자료 목록』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으로 사회학적인 주제를 다룬 것을 중심으로 하고, 교육문제를 주제로 한 것은 제외하였다. 주제별 연도별로 분류한 것이 <표 3>과 <표 4>이다.

여기서 단행본이라 한 것은 거의 전부가 국토통일원에서 간행한 것들로서 북한사회의 실태나 몇 가지 사회적 측면에 관한 자료의 정리가 대부분이고, 간혹 전문가들의 분석적인 연구들이 곁들여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분류한 주제별로 보면, 사회상 또는 실태를 서술하는 종류가 전체의 4분의 1이 넘고, 사회사상, 의식, 가치관, 종교적 신앙 등을 다룬 것이 13.5%로 그 다음이다. 문화, 예술로 분류된 것, 언론과 대중매체, 청소년, 사회정책, 노동자와 농민, 여성, 인구 등의 구체적인 집단 혹은 쟁점을 다룬 서술적인 내용의 것을 합한 나머지, 즉, 비교적 사회학적 이론 또는 개념의 틀로써 북한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학문적인 주제를 다룬 단행본을 모두 계산해도 소수에 불과하다. 사회변동의 7종(9.5%), 사회제도 5종(6.8%), 사회계층 4종(5.4%), 그리고 사회구조 1편(1.4%) 등 모두 17종으로 23%에 겨우 미치는 정도이다. 이는 사회실태를 다루는 한 범주의 수보다 적다. 이 정도의 작업도 70년 이전에는 거의 불모상태였다가 70년대 초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80년대에 와서 다시 수그러지고 있다.

대부분 단행본은 경부 용역의 자료정리 정도의 것이라 양적으로는 상당하지만, 역시 각종 잡지나 정기간행물에 발표한 논문이 더 많다.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4분의 1 정도가 사회의 생활실태에 관한 논설이고, 사회구조(6%), 사회변동(4%), 사회제도(3.4%) 및 사회계층(1.4%) 등 사회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다룬 것은 겨우 14.8%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6할의 논문들은 북한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 즉 사상과 의식, 사회정책, 풍습, 문예, 언론, 가족, 종교, 인구 등과 각종 사회집단 즉,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어린이, 학생, 지식인 등을 다루는 실태분석보고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가장 빈도가 높은 사회생활의 실태를 중심으로 하는 글들과 그 밖에 여러 측면 또는 집단들에 대한 글들의 상당수는 학문적인 성격을 띤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월남인사나 귀순자들의 회고적인 글들이며, 수필형식의 서술이

표 5. 北한 「사회」 관계의 글이 실렸던 간행물 (10편 이상만)

	실은빈도수	%		실은빈도수	%
북 한	64	18.3	통 일 생 활	18	5.1
자 유 공 론	43	12.3	통 일 정 책	13	3.7
국 토 통 일	24	6.9	현 대 사 조	11	3.1
국 제 문 제	19	5.4			

주종을 이룬다. 더구나 여기에서 <논문>으로 간주한 글들이 발표된 간행물의 종류도 비학문적인 성격의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북한「사회」 관계 350편의 글이 실린 간행물의 종류는 82종에 이르고 그 중 지금까지 5편 이상을 계재한 잡지 내지 정기 간행물은 14종, 지금까지 10편 이상을 실은 잡지는 7종에 불과하다(표 5). 나머지 중 반 이상이 1편의 글을 실은 것이다. <표 5>에 열거한 간행물 외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지(고대의 『아세아 문제연구』, 서울대의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영남대의 『통일문제연구』, 동국대의 『안보연구』, 『성대논문집』 등)는 소수에 불과하고, 일반 시중의 월간지류(『신동아』, 『사상계』, 『세대』, 『정경연구』 또는 『정경문화』, 『기독교사상』, 『여성동아』 등)도 소수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회 각 부문의 기관지 형식의 잡지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글을 발표한 필자들의 대다수는 학계 밖의 사람들이거나 북한전문가라 해도 학문적인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이들이 아니다. 여기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회분야 자료의 단행본 저자와 논문 필자들 중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는 극소수로 한정되어 손꼽을 수 있을 정도에 그친다. 도홍렬(전 국방대학원 교수, 현 충북대) 교수가 그 중 가장 집중적으로 북한연구를 해왔고 그 외에 황성모(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복수(강원대), 최홍기(서울대) 교수 등이 비교적 자주 이 방면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 밖에 서울대의 고영복, 김재윤, 이광규, 이문웅 교수와 이은죽, 고대의 임희섭, 흥익대의 이장현, 정신문화연구원의 김대환 교수 등이 북한관계 글을 한두 편씩 발표한 정도이다.

위의 개관에서 요약,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의 측면이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2) 「사회」분야라 해도 내용상으로는 생활의 실태, 사회 제측면이나 집단의 구체적인 상황분석·보고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 3)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주로 학문적이기 보다는 실태보고, 현

횡분석과 문제점 지적, 정책적 예측과 전망, 규범적 평가 등의 것이다. 4) 사회학이나 인류학 분야의 참여가 저조하다. 5)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론적, 방법론적 접근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3. 方法論的 側面의 考察

이상의 개관은 수량적 추세의 검토와 인상적인 관찰에 그친 것이므로, 그러한 연구업적들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성격을 띤 것인지, 제한된 지면에서 간추린 소수의 연구업적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방법론이란, 어떤 학문의 연구 기법(technique), 절차(procedure), 수단(instrument), 자료(data) 등과 관련된 방법들(methods)을 다루는 기술적인 차원과 그러한 방법들을 정당화해 주는 바탕, 특히 철학적, 인식론적인 기초가 되는 메타이론의 차원을 다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sup>(9)</sup>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도 그 방법론의 측면을 검토하려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차원 모두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가. 연구방법의 기술적 측면

사회과학이 하나의 경험과학인 한, 그 연구의 대상이 무엇이든, 우선 그 것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자료는 곧 대상에 관한 이론을 입증해 주는 증거로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자료가 어떤 인식론적인 성격을 띠는지, 이론과 사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뒤에서 다루게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비교적 현상분석의 입장에서 서서 자료의 성격 자체에 관해서만 논의해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북한사회의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활용해 온 자료는 주로 「간접적인 자료」 또는 「2차자료」다. 다시 말해서, 흔히 경험적 사회과학(반드시 실증주의적인 뜻이 아니더라도)에서 연구자가 스스로 직접 관찰하거나, 또는 그가 개발한 도구를 가지고 조사자들이 대신 자료를 수집해 주는 뜻의 직접관찰이 아닌 방법으로 얻어진 자료인 것이다.<sup>(10)</sup>

(9) 김경동外, 『사회과학방법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82), 특히 제1장 참조.

(10) 위의 책; Kenneth Bailey, *Methods of Social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1978).

북한연구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학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료수집을 한 예가 없을 뿐더러, 외국학자라 할지라도 북한을 여행한 사회과학자는 극소수일 것이고, 또 그들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해서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관찰을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간접자료는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록된 자료, 문서자료가 주종을 이루고, 다음은 북한에서 과거부터 근자에 이르기까지 월남, 귀순한 인사들의 경험을 청취하는 형식의 간접자료이며, 간혹 불온문서 취급인가를 받은 학자들이 직접 대하는 북한의 출판물, 대중매체 등이다. 어와 같은 자료가 지니는 한계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모로 평가가 내려진 바 있다.<sup>(11)</sup>

자료의 성격이 그러하므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료의 신빙성이라든가 정확성 같은 것을 따질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자료의 분석방법이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북한사회 관계자료가 수량화된 것이 아니고, 수량적인 자료가 기본이 되는 인구통계, 범죄통계 같은 것들마저 발표된 것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제한되고 신뢰도가 낮은 것들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료의 계량적 분석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실지로 그런 분석의 예를 찾기가 어렵다. 하물며, 상당히 정교한 통계적 분석이나 수리적 모형의 적용 내지 개발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두 가지 예외는 국토통일원에서 시도한 바 있는 델파이(Delphi)법에 의한 미래예측법이라 하겠는데, 이것도 자료자체는 물론 일차 자료가 아니지만 평가자들의 추측을 수량화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예외로 간주한 것이다. 다른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내용분석법의 이용이다. 이것은 이미 문서나 기록으로 나타난 자료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으로서, 의외에도 북한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그리 자주 활용한 것 같지 않다.

아뭏든, 수량적 접근의 장단점에 관한 견해의 평가는 차치하고 지금까지의 북한사회연구는 자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질적인 접근을 취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된 질적 접근에는 몇 가지 기본유형을 발견할 수 있겠는데, 첫째, 서술형(description)이다. 서술적 접근도 다시 나누어 보면,

(11) 북한연구의 자료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안병영, 황성모, 이상우, 김창순 諸氏의 위에 소개한 글들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주제를 내걸고 그것의 현상적인 모습을 주어진 공간적, 시간적 한계 안에서 묘사하는 것과, 시간적으로, 즉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접근이 있다. 북한의 경우는 후자 즉 전통적 역사연구법과 같이 입수 가능한 기록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길 밖에 없거나 혹은 과거에 직접 경험 또는 관찰한 사람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교연구법 (comparative)이다. 북한사회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한 가지 길로서 다른 공산권 사회, 특히 소련과 중공을 모형으로 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가끔 써 오고 있다. 동유럽, 쿠바, 베트남 같은 특수한 공산주의 사회들과의 비교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요즈음엔 남북한의 비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교연구의 경우는 대개 북한이 비교의 준거가 아니고 그 반대의 접근, 예를 들면 중공이 하나의 모형이 되고 북한은 그로부터 얼마나 일탈하는가 혹은 공통적인가를 본다.

세째는, 이미 제시된 어떤 이론의 모형을 준거로 삼아 북한사회가 그러한 이론의 모형에 맞아들어 가는지를 따지는 일종의 모형접근 (model approach)이라 하겠다. 이것을 이론적 접근이라 하지 않고 모형적 접근이라 한 까닭은, 이론적 접근이라면 조금 엄격한 뜻에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명제의 체계가 갖추어진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해 모형 접근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론모형이라 할 때, 반드시 어떤 설명적 명제의 체계가 합축되지 않은, 단순한 개념도식 (conceptual scheme)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 모형이란 말을 좀 더 엄격히 쓰면, 거기에는 설명의 틀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지금까지 사회과학자들이 북한연구를 할 때 이런 이론적 모형 접근을 취한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형은 대부분이 서양의 공산권 연구자들이 형성시킨 것들이었다. 이런 모형 접근은 북한을 다른 공산권 사회와 비교하는 경우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네째는, 이론적 (theoretical) 접근이라 하겠다. 이 경우에도 실제에 있어서 이론이란 말을 엄격하게 쓰는 사례와 그렇지 못한 보기がある는데, 前者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설명의 추구를 전제하는 데 비해, 後者에서는 「자료가 결여된 논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북한연구에서와 같이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이론적」 접근이라는 말로 상당히 사변적이거나 규범적인 주장들을 제시하는 수가 많은데, “불분명한 자료, 비논리적인 분석, 느낌만을 바탕으로 한 주장, 단편적인 몇 개의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일반화한 명

제들이 포함된 논문들이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sup>(12)</sup>

질적인 접근이 주종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북한사회 연구가 위의 어떤 접근을 취하든, 그 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북한연구가 첫번째 유형, 즉 서술형의 접근을 취하는 것들임은 이미 살펴본 대로이다. 다음 비교연구나 모형적 접근은 대개 정치학, 국제정치학의 연구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접근이고, 사회학적 연구는 주로 이론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연구에서 이들 여러 접근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나. 방법론의 메타이론적 측면

위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접근법과 자료의 성격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 보았지만, 그러한 방법들의 바탕이 되는 메타이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학계에서도 간헐적으로 논의되어온 바이며, 여기에서는 그러한 견해들을 추려서 소개하고 뒤에 論하도록 하겠다.

우선 자주 지적된 것은 이른바 실증주의적인 경험적 사회과학적 접근의 한계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현장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신뢰도가 높은 수량적 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한계는 너무도 자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sup>(13)</sup>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이 문제가 된다. 그 대안으로서, 외국에서 개발한 공산권 사회의 모형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sup>(14)</sup>, 무조건 외국의 이론 또는 방법론의 모형을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라는 특수한 정치, 공간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관점도 제시되고 있다.<sup>(15)</sup>

여기에 한 가지 요소를 더 첨가한다면, 북한연구의 가치론적 의미에 관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역사적 특수성과 통일에의 민족적 열망이라는 요인들로 말미암아 북한사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적 접근이라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깔린 가치합축성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12) 이 상우, 위의 글, p.85.

(13) 앞의 註 2)의 토론 참조; 황성모, 앞의 글.

(14) 안병영, 앞의 글; 註 2)의 토론; 이계희, 앞의 글.

(15) 註 2)의 토론; 황성모, 앞의 글; 황성모, “북한학 연구방법의 역사론적 시각”『북한』, (1975.8); 황성모, “사회심리학적 시각에서 본 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북한 학보』 제 4집 (1981.1).

서, 가치중립성을 배격하는 입장이 대체로 우세한 것이 아닌가 한다.<sup>(16)</sup>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연구가 하나의 사회과학적 작업으로서의 본격적인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북한사회에 관한 「이론」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음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sup>(17)</sup>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북한사회 이론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메타이론의 근거 위에, 어떤 내용의 것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아직껏 설득력 있는 뚜렷한 시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 4. 北韓「社會」研究의 方法論的 課題

그러면, 북한사회를 하나의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로 파악하려고 하는 입장은 취했을 때 과연 어떤 방법론적인 관점 또는 메타이론에서 출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작업도 아니며 현재로서는 완벽한 것을 기대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므로, 하나의 試案의인 노력에 그치는 정도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주로 북한의 사회적 측면을 대상으로 삼고 비교적 사회학적인 틀을 가지고 이에 접근하려고 한 저작들의 표본에서는 어떤 방법론적인 입장들이 취해져 왔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위에서 이미 분석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연구에서 주로 정치학적인 접근들이 지배적이어서 사회학적인 북한사회의 연구는 시기적으로 그만큼 뒤졌을 뿐 아니라 量的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정치학적인 연구도 성격상 사회학적인 것이 상당히 눈에 띈다.<sup>(18)</sup>

(16) 황성모, “북한연구현황과 방법론”; 구본태, “북한연구를 위한 집단방법 서설” 『북한학보』, 제 5집 (1981. 12).

(17) 이상우, 앞의 글; 구본태, 위의 글; 황성모, 위의 글; 안병영, 앞의 글.

(18)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박재규, 『북한사회의 구조적 분석』(서울; 미네르바사, 1972); 안병영, 『북한사회의 변동 가능성과 자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국토통일원, 1972); “북한정치 엘리트의 구조분석,” 『아세아 문제』 제16권 제 2 호(1973. 6); “북한사회변동 전망에 관한 연구”(국토통일원, 1974); 『구조기능론에서 본 남북한 사회역량 비교』(국토통일원, 1976); 안해균, “북한의 직업구조와 노동강화정책” 북한연구소, 『북한사회론』 북한연구총서 제 3집(1977); 이상우, “정치엘리트와 대중동원 조작,” 북한연구소, 『북한 정치론』(북한연구소, 1976).

그런데,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북한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건, 또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취하건 간에, 아직까지의 연구에서 공통된 한가지 특색은, 각자가 주어진 주제를 취급할 때에, 그 주제에 거의 한정된 범위의 이론적인 틀, 개념도식 같은 것을 간략히 제시하고는, 북한사회의 특성을 그 제한된 눈으로 제한된 측면만에 국한시켜 논술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계층문제가 주제일 경우, 계층에 관한 어떤 이론의 틀이나 개념도식을 선별적으로 소개하거나, 그것을 하나의 입장으로 취한다는 것을 밝히고는 곧 북한사회의 계층현상을 입수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특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비교적 일반적인 이론의 틀이나 개념도식을 제공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공통점으로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다루는 방법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정한 이론의 틀을 제시한 뒤 곧 북한을 다루게 되는데, 한정된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나, 문서 기록의 형식을 떤 자료를 가지고 이론바 「제도적」 접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공식기록, 법률문서, 보고서와 같은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자료를 다루게 되면 불가피해지는 현상으로서, 사실적인 분석보다는 규범적인 분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띤다.

그런데, 한편으로 각자가 조금씩이긴 하지만 달라지는 차원은, 부분적으로는 주제 자체가 다르다는 데에도 기인하겠지만, 적용하는 이론이나 전망이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조직과 동원체제를 다룰 때는 구조기능주의나 체제론을 개념도식으로 삼는 반면, 엘리뜨 또는 계층을 주제로 삼을 때는 갈등론의 접근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가족 연구라 할지라도, 어떤 이는 앵겔스에서 레닌에 이르는 정통 공산주의의 이론틀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미국식 가족사회학의 이론틀에 의존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사회학적 연구는 아직도 어떤 일관된 이론적인 틀, 개념도식, 심지어는 메타이론이 정립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으며 나아가서 구체적인 방법과 기법, 분석의 틀도 공유되고 체계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정치학 분야에서는, 아직 실지로 활용된 단계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주요한 몇 가지 분석틀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의 수준에서는 체계적인 정립의 시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보기들을 간단히 들어 보면, 그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안병영 교수의 「공산주의체제연구를 위한 제접근법」이라는 글로서 다음의 것들을 들고 있다.<sup>(19)</sup> 1) 역사·문화론적 접근법, 2) 전체주의적 접근법, 3) 복합조직 접근법, 4)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 5) 집단·갈등 접근법, 6) 엘리뜨 접근법, 7) 자유화 접근법, 8) 체계론적 접근법(체계론과 기능분석 포함), 그리고 9) 통일과정과 관련된 두 가지 발상으로서 수렴이론과 기능주의 통합론을 예로 들고 있다. 한편 이에 비하면 포괄성의 폭은 작지만, 북한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체제의 개념들로서 전체주의 모형, 공산주의 국가모형, 그리고 김일성체제를 독자적, 특수체제로 설정하고 그 모형을 정립하여 일반 속성과 특성을 분석·비교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 이홍구, 이상우 교수들의 논지도 참고가 된다고 본다.<sup>(20)</sup>

물론 정치학계간 사회학계간 위에서 열거된 여러 모델들이 일관되게 또는 실험적으로, 북한사회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비교 적용된 보기는 아직 잘 눈에 띠지 않는다. 위의 모델 중 어떤 한 두 접근법이 활용되고는 있더라도 그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취사선택을 거친 뒤에 적용하는 보기가 없다. 하물며,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한 메타이론, 이론과 개념의 틀, 방법과 분석의 틀을 찾아 보기 가 더욱 어려운 것임은 자명하다.<sup>(21)</sup>

그러면, 앞으로 북한「사회」의 사회과학적, 혹은 더 좁게는 사회학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틀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두 학자가 제기하고, 해답을 얻고자 시도한 것이 아니며, 그 답이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아주 초보적이지만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은 측면을

(19) 안병영,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pp.127.

(20) Hongkoo Lee, “North Korea as an Intellectual Question and a Political Issue,” 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North Korea, Co-sponsored by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munist Studies, February 23-28, 1981, San Francisco; 이상우, “북한연구” pp. 96-97.

이 외에도 ① 정치문화론적 조망, ② 비교역사론적 조망, ③ 정치과정론의 접근, ④ 체계적 변화의 이해 등을 열거한 이계희, 앞의 글과註 2)의 토론 참조.

(21) 시도가 시도에 그친 상태이긴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황성모교수의 글, 특히 “북한학 연구방법의 역사론적 시각” 및 “사회심리적 시각에서 본 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참조.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술적 차원을 고려해 보면, 주지하다시피, 북한사회연구의 일차적 인 장애는 자료에 있다. 자료의 입수가능성의 제약, 자료부족 등에서 비롯 하여 자료의 신빙성, 비체계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 점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과연 어떤 대안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한정된 자료이지만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볼 때, 발전의 여지는 아직 많은 것 같다. 한 가지 방법은, 주어진 문서·기록자료를 모집 단으로 하는 내용분석의 접근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수량적(흔히 실증주의적인 것과 동일시되는) 방법의 한계와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겠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분석은 수량적 분석에서 그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내용분석은 해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보적인 수량화가 아니면 이론바 서술적인 질적 분석이라 하겠다. 어떤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합당한 부분(문장, 구문 등)을 발췌 인용하는 절차가 지배적인 것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할 때에 이론 것 같다. 그 체계성의 부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용분석을 제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인습적인 범주화, 표집, 부호화, 단위설정 등의 기법도 개발되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료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기법과 철학이다.

여기에 질적 연구의 메타이론으로서 현상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접근을 제시할 수 있겠다. 즉, 북한의 자료가 무척 규범적이고 획일적이며 공식적인 경우가 거의 전부이므로, 이를 액면대로 분석하면 거의 무의미할 것이다. 行間을 읽고, 이면의 동기를 추리하고, 의미유형을 파악하고, 해석적으로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새로 개발되고 있는 사회학적 조사연구법 중에 현상학적인 바탕을 지닌 갖가지 질적 연구법이 차츰 널리 소개 이용되고 있다.<sup>(22)</sup> 북한사회의 연구에서도 이 방법의 실용성을 판가름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기법들의 방법론적인 함의(implication)를 살펴 봄으로써, 이제 메

---

(22) R. Bogdan and S. Taylor,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New York: Wiley, 1975). 물론 이 책은 질적 연구법 해설서의 한 보기에 불과하다.

타이론적인 차원을 고려하게 된 셈이다. 현상학적인 데 바탕을 둔 질적인 접근의 한 가지 특성은 관찰 대상의 입장에서 현상의 뜻을 해석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관찰자는 일단 자신의 가치, 선입관 등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한다. 자신의 선입관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실증주의적 태도와 같지만, 후자에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 해도 그 의미 해석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이론적인 준거틀에 입각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만일 이러한 접근을 북한사회의 연구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보고 이해하는 의미의 세계를 준거틀로 삼아 그 사회의 성격을 파악, 해석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sup>(23)</sup>

이와 같은 현상학적 또는 언어분석적 메타이론에 입각한 질적 접근에서는 대상 자체에 대한 관찰자의 가치판단을 일단은 배제하는 자세가 취해진다. 현상학의 철학적 방법에서 판단중지(epoché)라든가 팔호 안에 넣기(bracketting)라는 절차는 바로 자신의 모든 판단, 편견, 견해들을 정지하고, 팔호 안에 묶어둔 채 현상의 본질을 직관하려는 것이다. 이를 사회과학의 방법으로 도입하면 대상에 대한 판단(가치판단을 포함)을 일단 정지하고 대상을 그 자체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이 된다.

지금까지 북한연구가 남북관계의 역사적·정치적 상황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접근되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한 번 이상의 측면에서 성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연구가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의 바탕으로서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요, 또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우리의 체계와 자본주의적 경제지향의 장점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동시에 그 사회를 그 사회 자체로 보고, 그 사회의 입장에서 보려는 자세를 취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그 사회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명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체계와 경제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잠재력과 자아실현에 더 인간적이고 우수하다는 것과 북한의 체제와 사회주의 통제경제가 그 사이 겪어온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본질을 그대로, 색안경을 끼지

(23) 이는 현상학적인 사회학의 접근일 뿐 아니라, 후기 Wittgenstein의 영향을 받은 언어분석학파의 입장과도 상통하는 점이다. 북한의 자료가 주로 언어매체로 나타난 것이므로 그 분석도 이런 틀로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Richard Bernstein, *The Restructuring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6) 참조.

않은 자세로 보고 이해하는 접근이 더 유효하다는 적극적 자세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적 접근을 취하면서 그 사회의 변동상을 이해하려는 체계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특이한 이데올로기와 구체적인 객관적 사회경제적 변동과 그에 따르는 사회성원들의 적응적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sup>(24)</sup>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현상과 주관적 의미 해석의 차원이 정교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역동태(dynamics)를 설명하는 데 있어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political selectivity)를 들 수 있다.<sup>(25)</sup> 이는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원리로서, 주요 사회변동이 정치적 선택 즉, 정치엘리트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인데,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 특히 전체주의적이라 할 만한 북한사회와 같은 경우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라 하겠다.

사회적 구조적 특성을 서술하는 일은 기초작업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지만, 일관된 사회학적인 틀에 의하여 좀 더 역동적인 이해와 설명을 시도할 필요가 결실한 북한사회의 연구에는 위에서 시사된 질적, 역동적 접근들이 유용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에 의한 사회변동의 서술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도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sup>(26)</sup> 그러나 그것은 부수현상(epiphomena)을 다루는 수단이지, 현상의 본질적인 속성을 알게 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추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사회를 그 나름의 역사적, 구조적 특색을 지닌 하나의 사회조직의 체계로 인식하자는 것이요, 이는 그 사회의 조직원리(즉, 이데올로기와 구조적 특징)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떻게

(24) 공업화에 따르는 사회변동의 분석은, 이복수 교수의 “북한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의 사회적 수반현상”,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변동하는 남북한 사회』, (1974)가 있다.

(25) 金環東, 「アシアの 発展における 政治的淘汰の 原理——一つの 概念枠組として」 『社會學評論』, 제33권, 제 1 호(1982).

(26) 이런 객관적 지표에 의한 공산권 사회의 유형화 및 비교연구는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고, 북한보다 믿을 만한 동유럽에 대한 것이 활발할 뿐 아니라, 비공산권 사회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그 보기로, C. Mesa-Lago and Carl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1975).

운용되고, 그런 체계 속에서 사회화되는 개인 성원들의 심리적 특성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만, 그 사회를 「설명」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설명과 예측이 가능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 「정확성」에 가깝게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치판단 배제의 의의가 있으며, 또 기초과학의 작업이 정책과학의 바탕이 된다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